

기업의 재해 발생 후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Resilience of Companies After Disasters

봉영권*

Bong, Young-Kwon

요약

본 연구는 기업과 그 기업이 속한 사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연재해의 발생이나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의 유행으로 조직의 업무 중단이 발생하고 난 뒤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데에는 회복탄력성이 중요하다. 기업의 회복탄력성은 기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수많은 요소와 관련이 있다. 또한 기업과 연결된 많은 네트워크와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재난을 당한 뒤에 다시 사업을 영위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재난에 대응하는 저항의 능력 보다는 기업의 핵심 기능이 단기간에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하여 기업의 재난에 대한 '예방 활동', '대비 활동', '대응 활동'을 필수 요소로 삼고 있다. 그 외에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기 위하여, 여유 자원, 협력관계, 전략적 유연성, 혁신성, 기술 변화 대응력이 조직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조직역량이 기업의 회복탄력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권재득, 2018). 회복탄력성의 미치는 추가요인인 외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Keywords : 회복탄력성, 재난 대응, 사업연속성, 외부효과

1. 서론

기업경영에 대한 관심은 기업 내적 요인 관리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 외부 요인까지 연결하여 고려되고 있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외부와의 네트워크에 대한 연속성(Continuity), 기업의 창의적 공유가치(CSV: Creative Shared Value), ESG 경영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방향으로 경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기업이 재난을 당한 후에 어떤 역량으로 재난에 잘 대응하고 목표하는 수준과 일정에 따라 회복하고 사업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그 중요한 방안으로 기업 조직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기업 회복탄력성의 능력은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자원의 유무도 회복탄력성과 관계될 수 있다. 외부 협력 네트워크도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또한 전략의 유연함도 재난의 적응력과 관계된다. 또한 기업의 기술적인 고도화 능력은 회복탄력성의 역량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추가적인 요인으로 사회계약의 문제와 외적인 효과를 고려하고 조직의 다양성의 수준에 맞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 본론

기업이 재난으로 인한 업무 중단 사고 후에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회복하는데 미치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2.1. 조직 요인

우선 첫 번째 기업의 여유 자원이 관계되는 요인이다. 조직이 보유한 여유 자원은 조직의 회복탄력성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다. 기업이 보유한 여유 자원의 요소는 재난 발생할 때 흡수 역량과 이에 대응하는 혁신역량과 재난에 임하는 적응역량 등이 구성되며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회복탄력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여유 자원이다.

두 번째로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흡수 역량과 관계되어 회복탄력성을 강하게 하는 여유 자원이다.

세 번째로 기업의 혁신성이다. 기업의 혁신성은 재난에 대한 기업의 적응역량과 관계가 된다. 이 적응역량을 통하여 기업의 재난에 대한 회복탄력성에 도움을 주게 된다.

* 회원·BCM 협동조합 대표 firstsafe@naver.com

2.2. 외적 요인

외적 요인으로 관계되는 첫 번째는 사회계약을 잘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계약은 기업 조직이 속한 내·외부 환경의 구성원들이 상호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한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이 사회계약을 통하여 실제 상황에서 재난의 충격이 발생하였을 때 그로 인하여 자멸하지 않고 사회를 지탱하여주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사회계약에는 사회의 회복탄력성에 기여하는 모든 힘과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기업 조직 내에서도 조직의 회복탄력성에 기여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메커니즘의 구축을 요구한다.

두 번째로 외부 효과에 대한 파급력과 그로 인한 회복탄력성의 성패를 분석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파급효과는 조직의 내부 구성원 간에 발생되고 적용될 수 있으며,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즉 지역사회나 관계사와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외부 효과를 억제하고 선순환의 루트를 따르는 방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조직의 다양성을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조직이 동질성이 강한 경우에는 상호 구성원들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반면에 다양성을 갖는 조직에 비하여 충격의 위험 분산이 잘 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사업 도메인이나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성의 수준을 평가하고 기업의 수준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3. 결론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그 리스크의 가능성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초래될 수 있다. 기업이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 물리적인 특성 그리고 기타 환경에 의하여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리스크가 재난으로 발전되고 기업이 재해를 극복하고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에 대항하는 조직의 견고함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재난에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재난 발생 시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요인으로 필요한 여유 자원의 요인, 전략적 유연성 요인, 기업의 혁신 요인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회복탄력성이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외적인 요인으로 기업 조직에 맞는 사회계약을 잘 구축해야 하고, 외부 효과분석을 통한 대응 전략의 수립, 그리고 조직의 다양성 수준을 분석하여 기업 수준에 맞는 적합한 솔루션을 갖추는 방안을 제안한다.

재난을 발생시키는 리스크 분석을 통하여 기업에 맞춘 리스크 관리에는 다양한 리스크를 대응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리스크의 불확실성에 따라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가 점점 심각해가는 추세이므로 일직선 방식의 대비와 대응을 넘어서 기업의 조직과 외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재난 대응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요인들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재득 (2018) 기업의 회복탄력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박사논문
- Markus Brunnermeier (2021) THE RESILIENT SOCIETY, *Endeavor Literary Press*
- 행정안전부 (20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